

도시 구직자는 돈 벌고, 농가는 일손 구하고...

나주 농촌인력 지원창구 '1석2조'

100여 농가에 2000여명 알선

나주시의 농촌일자리 알선창구가 도시지역 구직자와 농번기철 농가에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3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중인 '농촌인력 지원창구'가 지난 한해 동안 100여 농가에 2000여명의 일손을 제공했다.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인 농촌인력 지원창구는 시가 일자리 중개역할과 인력들의 교통비와 작업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와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손지원팀은 통상 10여명이 1개

조로 구성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한다.

아침과 점심식사는 물론 간식을 제공 받으면서도 하루 일당이 6만원 정도로 초보 일꾼들에게는 쓸쓸한 수익이 되고 있다.

10일 오후 나주시 봉황면의 일동체 씨 과수원에서 배봉지 씨가 작업에 참여한 주모씨(여·39·광주시 광산구 도산동)는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을 해서 배 수정작업 때부터 일을 해왔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힘은 들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어 가계에도 보탬이 된다"며 "나주

시가 증가하는 일자리라서 다른 인력 중개업체에 비해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주씨는 또 "한편이 아쉬운 형편에 교통비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더는데 다 농가들도 맛있는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해주셔서 농촌의 넉넉한 인심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과수농가인 임씨는 "예전에는 농가들이 서로 일손을 빼가는 바람에 임금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부담이 됐는데,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 농가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며 "일자리 창구 운영을 더 활성화한다면 도시지역의 유흥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창구 확대를 주문했다.

일손창구가 이처럼 활성화된 것은 나주시 농촌일자리지원센터가 주도적으로 광주지역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 배포는 물론 통장회의 등에 참여해서 취지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알선활동에 나선 덕분이다.

나주시 이민관 기업지원실장은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작업 특성 때문에 많은 인건비를 주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들이 받을 동등 굴렀는데 일손지원 창구가 상당부분 큰 몫을 했다"며 "마을공동급식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과 아울러 농촌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손영철기자 yacson@



진도홍주 '아라리' 남도 전통술 최우수상

진도홍주 '아라리'가 최근 열린 2013년 남도 전통술 품평회 리큐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13일 진도군에 따르면 아라리는 친환경 진도산 쌀과 지초를 원료

로 붉은 선홍색의 아름다움과 심플한 이미지를 강화한 250ml 용량이다.

브랜드 이름은 진도아라리의 한 대목인 '아라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 가네'에서 따왔다. 바다의

순 우리말 '아라'와 마을이란 '리'의 합성어이기도 하다.

전 년 전통의 명주인 진도 홍주는 쌀이 '신비의 영약'으로 불리는 한약재 지초와 만나 미(味), 향(香), 색(色)을 고루 갖춘 고품격 명주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민선 5기 3년 성과와 과제

다양한 복지·교육... 삶의 질 높여

목포시

이달 말로 민선 5기가 출범한지 3년을 마치게 된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6기가 새로 출범한다. 지방선거를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민선 5기 전반기 22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성과와 과제를 긴급점검한다. <편집자註>

"일은 많이 했지만 재정이 바닥났다"는 게 민선 5기 3년의 냉정한 평가다.

목포 시민들은 다양한 복지·교육 시책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을 최대 성과로 꼽는다. 전국발 최초 '노인 목욕권' 지급과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행이 그 예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 '친환경 웰빙도시 건설'도 삶의 질 제고에 한 몫을 했다.

3無(공원·하천·그린벨트) 도시의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연동광장~임선역까지 6.2km에 이르는 철도 폐선부지를 웰빙 공원으로 탈바꿈시켰고, 옥암동 수변공원과 십자형 도시숲, 양왕산 삼림욕장, 부흥산 들레 숲길 조성 등은 물론 삼향천·임암천 수질개선을 통해 녹색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목포시 인구는 지난 80



원도심 공동화·재정난 풀어야 할 최대 숙제로

세계 최초 춤추는 바다분수, 요트 마리나, 갯바위 해양관광지 조성, 삼학도 복원 공원과 등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도 성과로 꼽힌다.

민선5기 공약은 7대 분야에 총 76개 사업. 이 가운데 21개는 완료됐고, 2개는 불가사업으로, 5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중득 시장(사진) 특유의 3力(행정력·추진력·활동력)을 바탕으로 국비확보에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 인구는 지난 80

년대 이후 25만명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목포 경제를 지탱해온 보해를 비롯해 행남사, 조선내화, 남양어망, 한국제분 등 터줏대감 기업들이 목포를 떠났기 때문이다.

현재 목포의 산업구조는 조선에만 편중돼 있다. 이 같은 취약한 산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빛까지 내가며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 조성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분양률이 관건이다.

시가 신도시 개발에 치우치면서 역으로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고, 옥암지구 택지 매각대금 가운데 10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10개 사업에 쏟아 부었지만 원도심 활성화는 아직도 '글썩'하다.

시 재정난의 심각성은 재정자립도에서도 드러난다. 2011년 27.79%에서 2012년 26.60%, 2013년 22.18%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부채도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민선 5기의 최대 과제는 지방재정 건전화에 맞춰져야 한다. 단·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중론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3전이 16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인 제네시스 쿠페 챔피언십을 비롯해 이미추어가 참가하는 벨로스터 티보 마스터즈 등 4개 종목에 총 85대의 차량이 참가한다. 안재모와 한민관 등 연예인 드라이버도 출전한다. <전남도 제공>

남악신도시 '울퉁불퉁' 자전거길

포장 뜯겨지고 골재 떨어져 사고위험

전남도청과 전남지방경찰청 등 전남지역 주요 기관이 들어선 무안 남악신도시 자전거길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최근 목포시와 무안군,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자전거길 구간(28km)에 대해 합동조사를 한 결과 골재가 떨어져 나가고 포장면이 파손된 30곳이 발견됐다.

물이 빠져나가도록 시공된 투수(透水) 콘크리트에서 자갈 등 골재가 빠

져나와 울퉁불퉁한 구간이 7곳에 1000여m에 달했다. 건축공사를 하면서 자전거도로 포장을 깔아낸 곳도 9곳에 550m였으며 자전거도로가 조잡하게 시공된 곳도 14곳이나 지적됐다.

이 자전거도로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남악신도시 조성과 함께 연차적으로 시공됐다.

특히 골재 유실이 심각한 구간은 시공 초기인 2006년 준공한 곳으로,

울퉁불퉁한 노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질 수 있는 사고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목표와 무안 등 해당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확보, 골재 유실 구간은 연말까지 전면 재시공하도록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투수콘크리트의 내구성(3~5년)이 지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재시공에 나설 계획이다"며 "현재 2년인 하자보수기간도 4년으로 늘려 예산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매실농가 '이중고' 개화기 저온으로 착과 안돼 작황 부진 고온·가뭄 생리장해 껍질 물러짐 극심

최근 매실 수확이 한창인 가운데 일종의 생리장해인 '매실 껍질 물러짐' 현상이 극성을 부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는 13일 매실 농가에서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매실 껍질이 물러지고 썩는 생리장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해 증상은 매실 껍질이 회색으로 마르며 물러지는 것으로 매실 주산지인 광양, 나주, 화순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매실 작황이 예년보다 부진한

가운데 생리장해까지 발생, 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개화기인 지난 3월에는 저온으로 착과가 제대로 안 돼 작황이 부진하다. 여기에다 껍질이 갈색으로 마르고 과육이 물러짐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

껍질 물러짐의 원인은 고온과 가뭄 상황에서 과실 비대에 따른 칼슘(석회)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칼슘은 토양에 존재하고 있지만 토양내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體內) 이동이 잘되지 않는다. 매실은 구연

산 함량이 다른 과실보다 많아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인기가 높다.

전국 매실 재배면적은 4600ha이며 전남에서는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생산량(3만9000t)의 25%인 1만여t이 생산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나양기 연구관은 "관수시설을 활용, 토양내 적정습도 유지가 중요하고 과실 비대기인 5월 하순경부터 엽화칼슘(0.3~0.5%액)을 2회 정도 살포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줄이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탈북미녀와 함께 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감동베라이어티쇼!

CHANNEL A 매주 일요일 밤 11시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채널A**